



“홍콩·심천 중국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 기관인 홍콩투자청(InvestHK)은 지난 5월 30일(화) 중국 심천시 정부와 공동으로 효율적인 중국·홍콩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홍콩·심천: 중국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자유무역경제 지역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심천시와 선진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홍콩 간의 시너지 효과를 알리기 위해 홍콩투자청과 심천시 무역공업국(深?市 貿易工業局)에서 공동 주최로, 홍콩무역발전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후원했다. 이 행사에는 홍콩 투자청의 마이크 라우즈(Mike Rowse) 청장과 왕효춘(Wang Xiao Chun) 심천시 무역공업국 부국장이 이끄는 20여명의 심천시 사절단이 방한하였으며, 그 밖에 첸조우 주한 중국대사가 환영사 전달을 위해 세미나에 참가하여 자리를 빛냈다.

홍콩투자청의 마이크 라우즈 청장은 범 주강삼각주(GPRD:the Greater Pearl River Delta)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인 홍콩의 이점을 중점으로, 중국본토와 홍콩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가 제공하는 홍콩·중국 시장 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마이크 라우즈 청장은 “범 주강삼각주(GPRD)지역은 세계적 주요 생산기지로 성장하였으며, 홍콩은 이 지역 생산활동을 감독하는 요충지 역할을 한다. 홍콩은 주강삼각주 지역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수준급의 전문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금융제도, 풍부한 해외 영업 및 마케팅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 주강삼각주 지역의 생산능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며, “13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그들의 지역본부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계속되는 홍콩 투자와 영업확대가 말로 그들이 중국 본토사업을 관리하는데 홍콩을 이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이와

같은 활발한 홍콩의 한국기업사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마이크 라우즈 청장은 말했다.

심천시 무역공업국의 왕효춘 부국장은 심천의 기업 환경에 대한 소개와 심천과 주강삼각주(PRD) 지역 내 한국 기업들이 촉각을 세울만한 사업 투자 기회에 대하여 발표했다. 왕효춘 부국장은 “삼성 코닝과 삼성 SDI를 포함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심천 내 총 251개 프로젝트에 미화 \$344 million를 투자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전자 통신, 화물 터미널 시설, 화학공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의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라우즈 청장과 왕효춘 부국장의 발표에 이어 삼성코닝 심천법인의 최경화 상무와 광성전자 홍콩법인의 양재성 대표가 삼성코닝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방안 및 광성전자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홍콩과 중국본토에서의 세제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말을 주기 위해 일신컨설팅사의 김찬수 회계사가 연사로 참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 시장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변국 외국자본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홍콩-중국간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내 비즈니스 창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

